



[낙농경영] 美, 낙농업 리스크 관리 강화 위한 모바일 앱 구축

- 낙농가 수익 예측 모바일 앱 개발로 리스크 최소화



미국에서 낙농가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모바일 앱이 출시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낙농가들과 함께 일해 온 수의사이자 영양관리 컨설턴트인 케빈 호겐도르 박사는 기존 낙농가용 마케팅 도구는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유 및 사료가격을 모니터링해 향후 12개월간 낙농가의 수익을 예측하는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 앱 ‘ZISK(수익, 폴란드어)’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낙농가가 사육두수, 일평균 원유가격 및 치즈와 유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3등급(Class III) 원유 가격을 제외한 평균 기준가격을 입력하면 이를 기반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낙농가의 예상 수익을 알려주고 알고리즘을 통해 목장 운영비를 산출한다. 또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우유, 옥수수 및 대두 관련 정보도 10분마다 업데이트되어 제공되며 월별 또는 연도별 기준 가상 계약 가격과 물량을 입력하면 해당 계약이 향후 1년간 농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 파악도 가능하다.

호겐도르 박사는 “최근 수년간 원유와 사료 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 가운데 낙농가들에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성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출처 : dairyherd.com, 3월 15일자 >

[정책동향] 호주, 공정한 원유가격 지불 위한 인증 제도 시행

- 리터당 최소 647원 지불 이행시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 부여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낙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정한 원유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한 낙농으로(Fair Go Dairy)’ 인증 제도를 5년 동안 시행하도록 승인했다.

이는 퀸즈랜드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최소 80% 사용해 가공된 유제품에 대해 공정한 원유가격이 지불되었을 때 해당 지역 낙농가협회(이하 QDO)에서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2021/22년에는 낙농가에게 리터당 최소 73.8센트(약 647원)를 지불한 것을 입증한 유제품 브랜드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QDO는 지난해 12월 참여 유업체와 협의해 2개년 생산비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기준 가격을 산정하고 승인을 요청한바 있다. 이에, ACCC는 경쟁소비자법에 근거해 공익을 위한 제도라 판단하고 이를 승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해당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원유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어떤 브랜드가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3월 15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